MILLET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진실을 만나다-밀레

광주 7/16℃ 목포 10/15℃ 여수 10/16℃

光州日報

2013학년도 수시2차 모집
원서접수 : 2012.10.16(화)~11.29(목)
고구려대학교
입학상담 : 080-330-7300

단기 4345년 (음력 9월 2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355호 1판 2012년 11월 8일 목요일

민주당 광주·전남 대선공약 16가지 살펴보니

지역발전 이끌 '그랜드 비전' 없다

현안사업 나열…해저터널은 文후보 동의없이 발표

민주통합당이 7일 광주상품거래소 설치와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건설 등을 포함한 광주·전남지역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3면〉

광주시·전남도가 요구한 지역 주요 현안사업들이 대부분 공약에 반영됐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지역 공약과 큰 차이가 없고 향후 광주·전남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창조적 비전이 담긴 대형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은 문재인 후보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를 정의·문화·풍류가 넘치는 풍요로운 품격도시, 지역균형의 모델도시 탈바꿈시키고, 녹색의 땅 전남을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광주·전남 대선공약 16가지를 발표했다.

특히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호남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한 대부분의 지역현안사업을 대선공약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역 발전 공약으로 광주 상품거래소 설치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2단계 사업 차질없는 추진, 광주 군용비행장 조속 이전, 자동차 100만대 도시 육성,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 개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전남 발전을 위해서는 F1 대회 성공개최 지원과 여수 해양관광특구 지정,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및 조기 완공,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건설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은 그동안 광주·전남의 현안으로 거론됐던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지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제시했던 '문화수도'와 공약과 같은 '폭발성'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공약

광주	전남
▲광주 상품거래소 설치	▲F1 대회 성공개최 지원
▲민주·인권센터, 5·18 민주광장 조성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건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단계 추진	▲귀농·귀촌학교 건립 지원
▲R&D특구 연계 LED 시범도시	▲수출형 전복·해삼 양식단지, 바다목장 조성
▲광주군용비행장 조속 이전	▲여수 해양관광특구 지정
▲노인타운 연계 실버산업 시범단지	▲국도 13호선 주변 산단 융·복합산업밸리 조성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육성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및 송정~목포 조기 완공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남북단일팀 구성	▲고흥 우주항공산업클러스터 육성

특히 새누리당이 내놓은 광주·전남지역 공약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다 되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목포~부산 고속철도 건설,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남해안 연륙교 건설을 검토중이고, 전남 광양·여수와 경남 남해와 사천을 아우르는 동서 경제통합지대 설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당도 문재인 대선 후보의 최종 공약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역 정·관계 및 전문가 그룹과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이 가능하고 즉각적인 국고 투입이 이뤄질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선은 지역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랜드 비전'이 담긴 대형 공약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후보 측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후보에게 보고됐지만, 동의받은 사항이 아니다"며 "반대가 많으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게 후보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美대선 오바마 재선 성공

선거인단 최대 332명 확보 완승…롬니 패배 시인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시카고에서 열린 축하 집회에 아내 미셸 오바마, 두 딸과 함께 등장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접전 끝에 재선에 성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치러진 대선에서 재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수(270명) 이상을 확보해 경쟁자인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눌렀다.

〈관련기사 5면〉

4년전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대통령이 됐던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고지에 올라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

미국 동부지역에서 오후 6시 투표가 끝난 이후 진행된 개표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는 숨막히는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개표 초반 롬니 후보에 한때 뒤지기도 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최대 경합주인 오하이오주(선거인단 18명)에서 꾸준히 앞서가며 전세를 역전시킬 발판을 마련했다.

결국 위스콘신주와 또다른 핵심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승리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승기를 잡았다.

반면 롬니 후보는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오하이오와 위스콘신, 아이오와 등 중부 경합주 경쟁에서 밀리면서 패배했다.

미 주요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은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하면 최대 3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롬니는 206명에 그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때 뒤졌던 전국 득표율에서도 역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 고향'인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의 캠프 본부에서 지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당선 연설을 했다.

롬니 후보도 패배를 인정하며 오바마에게 당선 축하전화를 걸었다.

세계 각국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각각 축하 서한을 보냈다.

한편, 이날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과 주지사 선거에서는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현재의 정치구도가 유지됐다. /연합뉴스

제8회 '광주일보문학상' 이현옥씨

'제 8회 광주일보문학상' 수상자로 이현옥(54·사진)씨가 선정됐다. 〈관련기사 12면〉

곽재구 순천대 교수, 윤삼현 아동문학가, 이미란 전남대 교수 등 심사위원단은 이씨가 응모한 소설 '떡볶이'에 대해 "단단한 주제의식, 순도 높은 비유와 공들인 문장이 돋보이는 작품"이라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장성 출신인 이씨는 지난 1997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부문에 '호롱불을 켜고'가 당선돼 등단했으며 광주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청소년 평전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 '이휘소 : 현대물리학의 별' 등을 냈다.

시상은 내년 1월 '201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에서 함께 이뤄진다. 상금은 300만원.

한편 광주일보 문학상은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들의 왕성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됐다. 미발표 신작 및 최근 1년 내 발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오늘 수능…광주·전남 4만명 응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8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3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91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올해 수능에는 작년보다 2만5109명 감소한 66만8522명의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각각 2만1802명, 1만9093명이 시험을 치른다.

모든 수험생은 이날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시험 시간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35분까지다. 시험은 1교시 언어영역, 2교시 수리, 3교시 외국어, 4교시 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서로 치러진다.

수능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5~10도, 낮 최고 기온은 14~17도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있는 군 단위 지역의 관공서 및 기업체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진다.

1교시 언어영역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오전 8시40분부터 8시53분까지 13분간, 3교시 외국어영역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30분까지 20분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된다.

시험장 주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당일에는 시험장 200m 앞에서부터 차량출입이 통제되므로 수험생은 이 지점부터 차에서 내려 시험장까지 걸어가야 한다.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8일 수험생에게 개인별 성적표를 배부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비교할수록 토요타
토요타 광주전시장 OPEN 이제 광주에서 비교해 주세요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36개월 무이자 할부
광주전시장 062_371_8383
TOYOTA Smile for Tomorrow